

Coaching에 눈을 뜨다.

안용운팀 노상규 목사

1. 세미나 개관

- 1) 일시 : 2014. 11. 6(월)-8(수)
- 2) 장소 : 고현교회 당회실(경남 거제도)
- 3) 강사 : 석정문 목사(Go Thrive Coaching 국제대표)
- 4) 훈련생 : 안용운 이순복 정찬수 옥재부 박정곤 노상규 김해태 목사(7명)

2. 세미나 준비

- 1) 참석 동기 : 평소 존경하는 안용운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참석을 중용하고 친구 박정곤 목사가 세미나 참가비를 해결하여 참석함.
- 2) 참석 전 준비 : 세미나 참가원서 작성 제출. 목회건강진단설문. 독후감-당신의 교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 강의안 리딩

3. 세미나 내용

Go Thrive Coaching Seminar의 첫 번째 세미나는 석정문 목사가 저술한 “코칭 시대 Coaching Generation-부제:코칭이 교회를 살린다.”를 주강의안으로 하고 PPT자료를 병행하여 강의하였다. 아울러 사전 준비한 객관적인 자료인 목회건강진단설문결과를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와 실행전략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의 중간 중간에 workshop을 하였다. 2명 1개조로 팀을 이루게 하는데 나는 안용운 목사님과 팀이 되었다. 각자가 답을 적게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한 답을 만들게 한 후 post-it chart를 만들어 벽에 붙인 후 돌아가며 설명을 하게하고, 즉석에서 다른 사람의 feedback을 받고, 석목사님께서 coaching을 해주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Go Thrive Coaching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목회의 실패원인이 목회의 큰 그림(목회비전, 핵심가치, 목표, 실행전략)의 부재, 실행전략팀의 부재, Coaching과정-follow up의 부재, 성과 및 평가의 부재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다.**

코칭의 유래와 정의를 강의해 주었는데, coach라는 단어는 15c 경 헝가리의 도시 콕스에서 개발된 마차에서 왔고, 영국에서 마차를 Coach라 불렀다. 이 후 개인 교사, 운동선수 지도자에게 적용되다가 1950년대부터 경영분야에 쓰여 졌고, 현재의 Coaching이라는 말은 1980년대 초 Thomas J. Leonard로부터 시작되었다. 코칭은 관계중심이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고, 공동의 아젠다를 실행하는 파트너이고

잠재력을 향상시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다. 우리 팀에서는 코칭의 정의를 “코칭은 신뢰관계의 코치가 피코치를 도와서 피코치 스스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는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치의 자질과 피코치의 자격이 있다. 코치는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와 혁신을 좋아하고, 목표와 실행전략을 정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잠재력을 찾고 폭발시켜 주고, 긍정적이고, 열정이 있고, 호기심이 많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시대에 앞선 사람이어야 한다. 피코치는 비전과 철학을 나누고, 목표와 실행전략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코칭의 성경관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코칭관계로 이드로와 모세는 위임, 요나단과 다윗은 지지와 옹호, 전도서는 시너지효과를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제자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디모테의 관계를 코칭관계로 보았다.

신학적 관점은 주도적인 하나님 God of Initiation, 사랑의 하나님 God of Love, 질문의 하나님 God of Questioning, 변화의 하나님 God of Change을 강의 했다. 주도적인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코치가 되어 범죄 한 아담을 찾아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코치가 주도권을 쥐고 찾아가 관계를 맺고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코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이 질문만을 던지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도록 현명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변화의 하나님은 코칭이 피코치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그것을 끌어내 주는 사람인데,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4. 세미나 평가

이번 **Go Thrive Coaching Seminar**는 여느 세미나와는 **확연히 달라 좋았다. 크게 7가지 좋은 점을 정리하였다.**

(1) 세미나 준비과정 : 세미나 참석 전에 등록원서 제출과 함께 **목회건강진단설문을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알려 줌으로 세미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독후감 제출과 강의안을 미리 보내주어 reading을 하게 함으로 세미나 전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세미나에 임할 수 있었다.

(2) 적절한 규모 : 동질 집단(같은 고신교단의 선후배 목사)의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고,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3) 탁월한 강의 : **강의안과 PPT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강의하여 일목요연함을 보여 주었다.**

(4) Workshop : **강의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Workshop을 하여** 본인이 적고, 팀원들과 합의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post-it chart로 만들어 발표하고 강사와 훈련생들이 feedback을 하게 하여 **강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토록 하였다.**

(5) 반복훈련 :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도 반복하여 remind

를 시켜 줌으로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였다.

(6) 객관적 데이터 활용 : 객관적인 데이터(목회건강진단결과)를 가지고 본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목표와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7) 사후 Feedback & Coaching : 목표와 실행전략을 정리하여 보내게 한 후 feedback을 하며 coaching하였다.